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16호 [루체 제25159호] 주제 105(2016)년 1월 16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성실히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셨습니다.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에 떠밀려들며 일떠서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한 일임안과 혁명성과 존중기술사 연구사 김육금은 온 가족의 성의를 다하여 거리특화 활동을 힘있게 벌리었으며 성의를 한층 더 높였던 지원으로 대중의 사랑을 북돋이주었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스스로 맡기기우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지난 기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음을 보여온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열기로 세계에 뛰어드는 건투장에 가족과 함께 자주 찾다가 힘 있는 원호사업으로 군인건설자들이 혁명 군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기도 두도주었다.

과학자, 교육자들은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고 내세워주는 당시의 뜻을 실장깊이 새기고 평양으로 동자 조평실은 애간지원칙행들격대에 땅바위를 날렸지만 혁명파업을 책임으로 수령하여 당시 건설자들을 둘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려차례에 걸쳐 많은 자제와 후방물자를 지원하였다.

평양시건재판리국 산하단위 손성희는 공사장에

여러차례 찾아가 건설자들과 함께 하고 그

들의 생활에도 흔적을 헤아려 정성을 기울였으

았던 원호사업으로 군인건설자들이 혁명 군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기도 두도주었다.

조선인민내무군 노성취주익단로동자 홍현우는

비롯하여 지난 기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음을

보여온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열기로 세계에 뛰어

어드는 건투장에서 애간지원청년돌격대 활동을 적극 벌리었으며 군인건설자들을 성의껏 원호하였다.

친도성평원로동자 지면회는 현장전의 봉사활동을 잘하면서 지원사업에서도 모범을 보였으며

평양술공장로동자 유선호도 순결한 공민적량심

을 지니고 많은 자제와 물자들을 공사장에 보내

주시였다.

친도성평원로동자 김홍영, 봉화도대

외일군기술지양성소로동자 리금향은 매일같이

공사장에 달려나가 건설자들의 일손을 도우면서

물심량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친도성평원로동자 김정일화축전이 진행된다.

제20차 김정일화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다.

주제 105(2016)년 2월 중순부터 김일성화

축전에서 열리는 축전에는 무력기관들

과 성, 중앙기관들,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

들과 각계 군로자, 청소년학생들, 외국의 벗들

이 참가하게 된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평양성질을 맞으며

제20차 김정일화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다.

제20차 김정일화축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실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행복을 위하여 헌몸을 초월처럼 봉해우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빼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으로,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발들이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전보척인류의

다함없는 흥보의 마음이 넘쳐나는 위인칭송의

꽃전으로 된다.

제20차 김정일화축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실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행복을 위하여 헌몸을 초월처럼 봉해우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빼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으로,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발들이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전보척인류의

다함없는 흥보의 마음이 넘쳐나는 위인칭송의

꽃전으로 된다.

제20차 김정일화축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실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행복을 위하여 헌몸을 초월처럼 봉해우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빼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으로,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발들이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전보척인류의

다함없는 흥보의 마음이 넘쳐나는 위인칭송의

꽃전으로 된다.

제20차 김정일화축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실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행복을 위하여 헌몸을 초월처럼 봉해우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빼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으로,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발들이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전보척인류의

다함없는 흥보의 마음이 넘쳐나는 위인칭송의

꽃전으로 된다.

제20차 김정일화축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실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행복을 위하여 헌몸을 초월처럼 봉해우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빼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으로,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발들이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전보척인류의

다함없는 흥보의 마음이 넘쳐나는 위인칭송의

꽃전으로 된다.

제20차 김정일화축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실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행복을 위하여 헌몸을 초월처럼 봉해우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빼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으로,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발들이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전보척인류의

다함없는 흥보의 마음이 넘쳐나는 위인칭송의

꽃전으로 된다.

제20차 김정일화축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실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행복을 위하여 헌몸을 초월처럼 봉해우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빼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으로,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발들이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전보척인류의

다함없는 흥보의 마음이 넘쳐나는 위인칭송의

꽃전으로 된다.

제20차 김정일화축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실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행복을 위하여 헌몸을 초월처럼 봉해우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빼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으로,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발들이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전보척인류의

다함없는 흥보의 마음이 넘쳐나는 위인칭송의

꽃전으로 된다.

제20차 김정일화축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실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행복을 위하여 헌몸을 초월처럼 봉해우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빼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으로,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발들이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전보척인류의

다함없는 흥보의 마음이 넘쳐나는 위인칭송의

꽃전으로 된다.

제20차 김정일화축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실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행복을 위하여 헌몸을 초월처럼 봉해우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빼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으로,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발들이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전보척인류의

다함없는 흥보의 마음이 넘쳐나는 위인칭송의

꽃전으로 된다.

제20차 김정일화축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실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행복을 위하여 헌몸을 초월처럼 봉해우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빼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으로,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발들이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전보척인류의

다함없는 흥보의 마음이 넘쳐나는 위인칭송의

꽃전으로 된다.

제20차 김정일화축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실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행복을 위하여 헌몸을 초월처럼 봉해우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빼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으로,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발들이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전보척인류의

다함없는 흥보의 마음이 넘쳐나는 위인칭송의

꽃전으로 된다.

제20차 김정일화축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실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행복을 위하여 헌몸을 초월처럼 봉해우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빼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으로,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발들이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전보척인류의

다함없는 흥보의 마음이 넘쳐나는 위인칭송의

꽃전으로 된다.

제20차 김정일화축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실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행복을 위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 학습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

학습은 혁명의 랑식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

오늘 우리 당은 전당적으로 모든 일군들이 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흔히 무장하고 높은 실무적 자질을 갖춘 실력가로 준비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습은 혁명의 랑식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학습은 혁명가에게 있어서 생명선이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서는 육체적 생명을 유지해나갈 수 없는처럼 혁명가가 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정치적 생명을 유지해나갈 수 없다. 혁명가는 학습을 통하여 당과 수령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삶으로 만들게 되고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지식과 높은 정치적 투쟁력을 갖출 것이다.

학습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일군들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아침파 저녁이 다르게 눈부신 기적과 벤익이 일어나고 세기적인 비약으로 세월을 주름잡아 내달리는 것은 선군조선의 격동적인 현실이다. 오늘날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지난날의 난 경험과 지식, 주관적 유태과 일상만으로는 거창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설 수 없다. 대중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불러세우고 해도 그렇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고 해도 높은 실력을 지녀야 한다.

실력이자 당에 대한 충성성이 일실적이며 꾸준한 학습으로 이어진 노력과 열정의 산물이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비범한 사상론적 예지와 천재적인 과학적 통찰력을 지니시고 강성 국가건설 투쟁을 혁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자 신다.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는 물론 최첨단 과학기술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환히 펼치고 지식과 전술을 습득해나가고자 이끄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열정이다.

학습은 일군들에게 다방면적 인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사업이다.

지식은 광명이고 무식은 암흑이다. 말거친 혁명파업에 대한 자신심과 높은 창조적 안목, 무슨 문제든지 중심과리를 찾아 혁신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표술과 방법론도 폭넓고 깊이 있는 학습이다.

학습은 일군들이 높은 문화적 소양을 지닐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불수 없게 한다. 지식은 일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더우기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일군들이 어떤 지식을 어느 정도의 깊이에서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지도 일군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본하는 가장 중요한 정표의 하나로 되고

의 사업을 그들의 사상감정에 맞게 잘 해나갈 수 있다.

일군들이 문화수준을 높이는 보출은 다른데 있지 않다. 문학과 예술도 알고 어려 분야의 다양적인 지식과 상식을 소유하기 위한 학습을 잘하는데 있다.

학습은 사람들을 사업에서는 실력과 생활에서는 학력을 만든다. 5대 혁명가족의 명부들을 부르며 대중을 혁명열, 투쟁열로 고무할 줄도 알고 악기도 능숙하게 타며 시도를 풀고 춤도 추면서 이루어지고 축적되어나간다.

지식경계에서 어울리는 팔방미인, 경제와 문화는 물론 역사와 지리에 대한 상식을 폭넓고 깊이 있게 알고 있으면서 모든 사업을 대중의 심리에 맞게 처리하는 다재다능한 일군은 폐외없이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한 일군이다. 아무리 열

성이 있고 각오가 높은 일군이라도 문화수준이 낮고 정서가 미비면 대중은 잘 따르지 않게 된다. 박식하고 인상이 좋으며 인정증과 넘치는 일군의 아름다운 향기는 꾸준한 학습이 가져다주는 것이다.

일군들이 우리 당의 문화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거리와 마을, 일터들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자고 하여도 아는 것이 많아야 하고 우리 사회의 본래와 대중모임 일심 단결을 강화하고 온

사업에 진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과 도덕기강을 세우자고 하여도 높은 문화수준을 지녀야 한다. 혁명적 통지와 함께 위험을 창조하자면 지식의 탑을 쌓아 높은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이 최첨단을 들고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현대 과학기술

을 떠난 자강력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학습을 꾸준히 하여 현대 과학기술에 정통한 일군들이 설비, 원자재제

의 국산화를 실현함에 대한 당정책과의 일관성이 높은 일군들에 대해서만은 지식경계를 확장할 수 있다.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일군들 모두가 다양적인 지식과 함께 실천력을 지니기 위하여 부단히 학습하고 열심히 배워나갈 때 온 나라에 창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는 것이다.

학습은 일군들이 높은 문화적 소양을 지닐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일군들은 대중의 교양자이며 문명국 건설의 기수들이다. 일군들이 높은 문화적 소양을 지녀야 풍부한 정서와 고장한 인간미로 대중을 끌어당기며 군중과

책은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

◇ 지금 온 나라에 혁명적 학습열풍이 세차게 일고 있다. 뻬스와 지하철 동차안에서도, 출근길과 퇴근길에 오른 사람들은 책을 읽는 모습들이 눈에 띠어 늘어나고 있다. 그들 속에는 나에게 속한 일군들과 파자들도 있고 대학생들과 동동청년들도 있다. 아는 것이 훨씬이다. 이들처럼 책을 많이 읽고 폭넓고 깊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만이 사상 정신적 죄죄로 모으고 둘은 혁명열, 투쟁열로 조국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지식은 사람들의 문명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며 나라의 부강발전의 근본원천이다. 오늘 우리 당이 이끄는 강성 국가건설위원회는 누구나 비상한 사업작과와 힘승의 신념, 높은 실력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학습을 꾸준히 하고 책을 많이 읽어 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야 누구나 천리마, 밀리마 타고 비약하고 전진하는 오늘의 진군속도에 발걸음을 맞출 수 있다.

◇ 책은 말없는 선생이며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책은 사람들에게 풍부한 지식을 주는 말없는 선생입니다.』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일군에게 일부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 책을 보지 못한 대로 그들은 말도 되지 않는다.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일군들이 풍부한 문화수준을 높이고 정서가 바뀌면서 대중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를 맡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를 맡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를 맡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를 맡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를 맡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를 맡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를 맡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를 맡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를 맡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를 맡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를 맡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를 맡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를 맡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를 맡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를 맡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를 맡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를 맡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를 맡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를 맡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를 맡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를 맡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를 맡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를 맡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를 맡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강성 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를 맡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려는 일군에게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긴장하여 학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학습에 대한 일군들의 편집과 편장에 달려있다.

백두산대국의 청춘송가

청년건설의 성스러운 70년사에 새겨진 명곡들의 음악세계를 들이켜보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게 되는 뜻깊은 해에 우리 조국은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창립 일흔돐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 청년들의 존엄높은 전위조직인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의 성스러운 혁사를 그들이 떨친 위훈으로 말할수도 있고 이땅에 수없이 일폐세운 기념비적 창조물을 가지고도 자랑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청년들이 제일 사랑하며 친근한 김동무로 여기는 노래로 청년운동의 성스러운 혁사를 말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총진군대오의 전력에 내세워 강성 국가의 문화를 남자여 달게 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청년들은 누구보다도 노래를 사랑한다. 기쁠 때도 노래를 부르고 어려울 때도 노래를 부르며 부탁하는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나가는 것이 청춘시절이다.

그러나 반만년의 민족사를 돌아보면 그 어느 시기, 그 어느 사회에도 청년들은 있었지만 혁사는 그들에게 청춘의 심장을 끊어 하는 노래 한편 주지 못하였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짐배하는 사회에서 청년들은 한갓 진장한 로동력에 불과하였다.

혁사의 비극을 끌장내며 이 땅에 수놓아진 청년중시의 위대한 70년은 우리 청년들의 운명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 왔으며 훌륭한 반만년의 혁사가 부리워 할 아름다운 청춘송가의 바다를 펼쳤다.

우리의 청춘송가는 위대한 혁사, 혁명적인 음악창작의 혁사를 가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은 노래로 시작되고 노래로 전진하여온 혁명이라고. 교사하신 것처럼 조선청년들은 타월한 수령과 위대한 당의 영도를 받는 영광님의 행로에서 수많은 노래들을 끊임없이 창작해왔다.

조선청년운동의 성스러운 혁사는 백두산청년강국에 수놓아진 이름과 청춘송가의 혁사이기도 하다. 조선청년운동사에 기록된 노래들을 새길수록 조선청년운동의 근본형태이며 무엇이든 세찬 막통이 어떻게 뛰어들고 허리를 털고 험난한 청년의 아름다운 향기가 무언가를 알게 된다. 아울러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것이 얼마나 높

라운 기적과 위훈을 낳는가를 온넋으로 절감하게 된다.

하늘의 별무리처럼 무한한 우리 청년들의 음악세계를 생각하라면 제일먼저 떠오르는 한편의 노래가 있다. 우리 나라 밤일민족해방투쟁의 털털한 지도자이신 김형철선생님께서 모신 청년들의 환희와 무궁무진한 힘이 용솟음치는 노래에는 거창한 시대적변혁과 함께 조선청년들의 운명의 맹줄을 밟혀주는 뜻깊은 구절이 있다.

《김장집 두리에 웅치자!》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품으신 애국애족의 위대한 경륜을 민주적 분발해 용진용진 나아가세 문명부강제라고 호소한 명곡은 지금도 우리 청년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다.

무지와 몽매, 착취와 억압의 질곡 속에 시들어가던 청년들의 가슴속에 지원의 큰뜻을 심어주었고 청증의 무궁무진한 힘을 깨닫게 하여준 이 노래아말로 조선청년운동의 새시대를 알리는 떠명의 종소리였고 수백 수천의 진정한 청춘송가들을 떠올린 귀중한 뿐이었다.

그때로부터 한세기가 흘렀다. 내조국땅에서는 위대한 전변이 일어났다.

그남의 혁사의 종소리를 새겨안은 혈혈의 청춘들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주인공들이 되어 조선청년운동의 장엄한 새 혁사를 수놓았다.

아버지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같은 자신의 청년기와 일치하였다

하고 감회깊이 회고하신 것처럼 일제를

쳐부시고 나리를 해방하기 위한 항일혁명전쟁의 주역은 청년들이었다.

열혈청춘들이 흥을 잡고나선 항일혁명전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 청년의 새 노래들이 깨어나고 있다. 그 노래들은 결코 피아노의 화려한 울림속에 다이어되고 정갈한 오선지에 새겨진 것이 아니었다. 눈보라 울부짖는 청교의 일렁 속에서 항일의 혈전만리 피와 목숨을 바쳐싸운 청년혁명가들의 뜨거운 심장속에서 울려나왔고 혁명투쟁의 고귀한 전력을 깨우쳐주는 혁명의 교파서와도 같은 명작들을 마련하시기 위해 대단히 중시하였고 그 창작을 품에 지도함으로써 세상에 내놓고 자랑만한 한 명품제보를 마련해 주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 누구에게나 노래수첩이 간직되어 있다. 그 수첩들에는 혁명가요들과 전시가요, 청리마시대의 노래들과 함께 5대혁명 가국의 노래들이 정히 올려져 있다. 민족에게 세대들에게 혁명투쟁의 고귀한 전력을 깨우쳐주는 혁명의 교파서와도 같은 명작들을 마련하시기 위해 대단히 중시하였고 그 창작을 품에 지도함으로써 세상에 내놓고 자랑만한 한 명품제보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청년들과 그들의 노래를 대단히 중시하였고 그 창작을 품에 지도함으로써 세상에 내놓고 자랑만한 한 명품제보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 혁명의 넌데기에는 시대를 끌어안은 청춘의 노래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으며 우리 모두의 가슴마다에는 청춘시절을 아름답게 채색해 주고 영웅적투쟁에 불려일으켜준 노래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간직되어 있다. 청리마시대의 주인공들의 뇌리에는 《벼루에 청춘》이라는 청춘시장장이 우리들은 청년들 사회주의건설자디》의 씩씩한 구절과 함께 노래 《청년사회주의건설자체험전곡》이 생생히 흐름에 들어온다. 1909년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해쳐온 새세대에게는 당의 운명이자 조국의 운명이고 청년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온넓으로 걸감하며 사로청(당시) 제8차대회 정기문제가 실마리로 청년문화에 많은 관심을 들리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항일혁명선열들이

《직기자》를 부르며 비겁한자와 갈라

면 가우. 우리들은 끊은줄을 지키리

라는 혁명의 맹세대로 수령님을 따

라 총정의 한길을 걸어온처럼 당

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새로

걸어나가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암고 신념

의 노래 《높이 끌어온기를 힘차

게 불렀다. 군인들은 전호가에서 노래 《내가 지켜온 조국》을 부르며

혁명의 수뇌부결시옹위의 신념을 충

장처럼 벼리고 청년건설자들은

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이를 수

이처럼 위대한 혁사와 전통이 있어 우리 청년들은 해방후 진정한 청년전위조직을 가진 갑격파 환희를 노래 《민주청년행진곡》으로 당당히 터칠수 있었다. 민족의 태양을 높이 모신 청년들의 환희와 무궁무진한 힘이 용솟음치는 노래에는 거창한 시대적변혁과 함께 조선청년들의 운명의 맹줄을 밟혀주는 뜻깊은 구절이 있다.

《김장집 두리에 웅치자!》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품으신 애국애족의 위대한 경륜을 민주적 분발해 용진용진 나아가세 문명부강제라고 호소한 명곡은 지금도 우리 청년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다.

무지와 몽매, 착취와 억압의 질곡 속에 시들어가던 청년들의 가슴속에 지원의 큰뜻을 심어주었고 청증의 무궁무진한 힘을 깨닫게 하여준 이 노래는 조선청년운동의 새시대를 알리는 떠명의 종소리였고 수백 수천의 진정한 청춘송가들을 떠올린 귀중한 뿐이었다.

조선청년운동의 명맥이 굽이치는 이 노래는 주제 100(2011)년 2월 27일 당보에 《조선청년행진곡》이라는 회한한 제목으로 크게 게재되었고 새 세기의 청년행진곡으로 회성되었다.

반만년민족사와 70년은 대비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백두의 혼통을 자기의 명줄을 살피고자 했던 혁사는 그때부터 한세기가 흘렀다. 내조국땅에서는 위대한 전변이 일어났다.

그남의 혁사의 종소리를 새겨안은 혈혈의 청춘들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주인공들이 되어 조선청년운동의 장엄한 새 혁사를 수놓았다.

아버지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같은 자신의 청년기와 일치하였다

하고 감회깊이 회고하신 것처럼 일제를 쳐부시고 나리를 해방하기 위한 항일혁명전쟁의 주역은 청년들이었다.

열혈청춘들이 흥을 잡고나선 항일혁명전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 청년의 새 노래들이 깨어나고 있다. 그 노래들은 결코 피아노의 화려한 울림속에 다이어되고 정갈한 오선지에 새겨진 것이 아니었다. 눈보라 울부짖는 청교의 일렁 속에서 항일의 혈전만리 피와 목숨을 바쳐싸운 청년혁명가들의 뜨거운 심장속에서 울려나왔고 혁명투쟁의 고귀한 전력을 깨우쳐주는 혁명의 교파서와도 같은 명작들을 마련하시기 위해 대단히 중시하였고 그 창작을 품에 지도함으로써 세상에 내놓고 자랑만한 한 명품제보를 마련해 주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 누구에게나 노래수첩이 간직되어 있다. 그 수첩들에는 혁명가요들과 전시가요, 청리마시대의 노래들과 함께 5대혁명 가국의 노래들이 정히 올려져 있다. 민족에게 세대들에게 혁명투쟁의 고귀한 전력을 깨우쳐주는 혁명의 교파서와도 같은 명작들을 마련하시기 위해 대단히 중시하였고 그 창작을 품에 지도함으로써 세상에 내놓고 자랑만한 한 명품제보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청년들과 그들의 노래를 대단히 중시하였고 그 창작을 품에 지도함으로써 세상에 내놓고 자랑만한 한 명품제보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 혁명의 넌데기에는 시대를 끌어안은 청춘의 노래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으며 우리 모두의 가슴마다에는 청춘시절을 아름답게 채색해 주고 영웅적투쟁에 불려일으켜준 노래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정의로써 청년문화에 많은 관심을 들리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항일혁명선열들이

《직기자》를 부르며 비겁한자와 갈라

면 가우. 우리들은 끊은줄을 지키리

라는 혁명의 맹세대로 수령님을 따

라 총정의 한길을 걸어온처럼 당

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새로

걸어나가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암고 신념

의 노래 《높이 끌어온기를 힘차

게 불렀다. 군인들은 전호가에서 노래 《내가 지켜온 조국》을 부르며

혁명의 수뇌부결시옹위의 신념을 충

장처럼 벼리고 청년건설자들은

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이를 수

없는 열렬한 수령홍모의 혁폭을 펼치었다.

청년들이 어떤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면 그들의 정신도덕풍모와 혜택 사회의 면모는 물론 나라와 민족의 앞날까지도 가능할수 있게 된다.

천민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귀중한 사상적방식을 주고 계열하고도 비장한 강정정서를 체험하게 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들을 부르며 우리 청년들은 승리와 기적으로 빛나는 백두산대국의 혁사를 창조해 가고 있다.

천민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귀중한 사상적방식을 주고 계열하고도 비장한 강정정서를 체험하게 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들을 흥얼거리면서 청년들을 위한 노래를 창조해 가고 있다.

우리 당의 70여성상의 혁사는 우리 청년들을 날리리를 부리는 속에 아버지 김복, 차왕수, 오종흡과 리수복과 같이 조국과 혁명을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게 하늘의 별도 따지고 우리 장군님의 친정은 검역과 험난한 청년들에게는 길을 헤쳐온 혁명의 노래를 잊고는 못된다.

우리 당의 70여성상의 혁사는 우리 청년들을 날리리를 부리는 속에 아버지 김복, 차왕수, 오종흡과 리수복과 같이 조국과 혁명을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게 하늘의 별도 따지고 우리 장군님의 친정은 검역과 험난한 청년들에게는 길을 헤쳐온 혁명의 노래를 잊고는 못된다.

우리 당의 70여성상의 혁사는 우리 청년들을 날리리를 부리는 속에 아버지 김복, 차왕수, 오종흡과 리수복과 같이 조국과 혁명을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게 하늘의 별도 따지고 우리 장군님의 친정은 검역과 험난한 청년들에게는 길을 헤쳐온 혁명의 노래를 잊고는 못된다.

우리 당의 70여성상의 혁사는 우리 청년들을 날리리를 부리는 속에 아버지 김복, 차왕수, 오종흡과 리수복과 같이 조국과 혁명을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게 하늘의 별도 따지고 우리 장군님의 친정은 검역과 험난한 청년들에게는 길을 헤쳐온 혁명의 노래를 잊고는 못된다.

우리 당의 70여성상의 혁사는 우리 청년들을 날리리를 부리는 속에 아버지 김복, 차왕수, 오종흡과 리수복과 같이 조국과 혁명을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게 하늘의 별도 따지고 우리 장군님의 친정은 검역과 험난한 청년들에게는 길을 헤쳐온 혁명의 노래를 잊고는 못된다.

우리 당의 70여성상의 혁사는 우리 청년들을 날리리를 부리는 속에 아버지 김복, 차왕수, 오종흡과 리수복과 같이 조국과 혁명을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게 하늘의 별도 따지고 우리 장군님의 친정은 검역과 험난한 청년들에게는 길을 헤쳐온 혁명의 노래를 잊고는 못된다.

우리 당의 70여성상의 혁사는 우리 청년들을 날리리를 부리는 속에 아버지 김복, 차왕수, 오종흡과 리수복과 같이 조국과 혁명을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게 하늘의 별도 따지고 우리 장군님의 친정은 검역과 험난한 청년들에게는 길을 헤쳐온 혁명의 노래를 잊고는 못된다.

우리 당의 70여성상의 혁사는 우리 청년들을 날리리를 부리는 속에 아버지 김복, 차왕수, 오종흡과 리수복과 같이 조국과 혁명을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게 하늘의 별도 따지고 우리 장군님의 친정은 검역과 험난한 청년들에게는 길을 헤쳐온 혁명의 노래를 잊고는 못된다.

우리 당의 70여성상의 혁사는 우리 청년들을 날리리를 부리는 속에 아버지 김복, 차왕수, 오종흡과 리수복과 같이 조국과 혁명을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게 하늘의 별도 따지고 우리 장군님의 친정은 검역과 험난한 청년들에게는 길을 헤쳐온 혁명의 노래를 잊고는 못된다.

우리 당의 70여성상의 혁사는 우리 청년들을 날리리를 부리는 속에 아버지 김복, 차왕수, 오종흡과 리수복과 같이 조국과 혁명을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게 하늘의 별도 따지고 우리 장군님의 친정은 검역과 험난한 청년들에게는 길을 헤쳐온 혁명의 노래를 잊고는 못된다.

우리 당의 70여성상의 혁사는 우리 청년들을 날리리를 부리는 속에 아버지 김복, 차왕수, 오종흡과 리수복과 같이 조국과 혁명을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게 하늘의 별도 따지고 우리 장군님의 친정은 검역과

